

■ 한전, 빛가람혁신센터 개소와 향후 전망



8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장병완 국회의원, 조환익 한국전력사장 등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공동취재단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너지로 완성”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한전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이하 빛가람혁신센터)를 개소하고 한전 협력업체와 에너지 분야 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빛가람혁신센터는 지난 2015년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리를 잡은 뒤, 19번째로 문을 여는 센터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관련 협회·기업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빛가람혁신센터가 개소했다.

◇ 5년간 200억원 투자

빛가람혁신센터는 한전이 자율형으로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자율형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담 기업이 일체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

5년간 200억원 투자...300개 스타트업 육성

광주 수소차·에너지밸리·여수산단 연계

미래 먹거리 발굴·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는 혁신센터다.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포항혁신센터가 자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 고경도 창조경제조정관은 “자율형 혁신센터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전담기업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며 “빛가람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자율형 혁신센터가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빛가람혁신센터는 나주(에너지밸리)·여수(산단단지)·고창(전력시험센터) 등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관련 인프라와 연계해 에너지신산업 관련 생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 광주(수소차, 충남(태양광), 충북(전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기존의 혁신센터와 협력해 에너지신산업 시범·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빛가람혁신센터는 ▲에너지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역혁신 지원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지원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전은 향후 5년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300개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에는 약 20개의 스타트업을 키울 방침이다. 한전은 빛가람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원 등 총 43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 조정관은 “빛가람혁신센터는 한전의 사내벤처 진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창업 거점’ 혁신센터 지원

정부는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서도 혁신센터가 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올해 혁신센터의 예산도 437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319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담 기업들도 혁신센터 운영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혁신센터 운영 의지가 떨어지는 전담 기업에 보상을 열어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담 기업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혁신센터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올해도 혁신센터 운영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혁신센터에는 추가적으로 전담 기업을 불일 계획이다. 실제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혁신센터에는 KT가, GS가 운영하고 있는 전남혁신센터에는 한전이 추가 전담 기업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고 조정관은 “혁신센터 운영에서 발을 빼겠다고 한 전담 기업이 아직까지 없다”며 “전담 기업들이 혁신센터의 운영이 실보다 특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되찾나

인수자금 1조 확보...내달말 새주인 결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업체를 제치고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제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함께 참여할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현재는 더욱 안정적인 실탄을 마련하고자 FI보다 재무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업체 더블스타가 1조원대의 인수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박 회장 역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이번에 박 회장이 손잡은 FI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효성이 거론됐으나 효성은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백기사’ 후보로 사촌 동생인 박명구 금호전기 회장, 사촌인 대상그룹 등 가족·친지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 중국 캄차이나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된 바 있다.

우선협상수거권을 보유한 박 회장은 그동안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그룹제권을 마무리하겠다고 강한 인수의지를 밝혀 왔다.

우선협상권 행사를 결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당분간 SI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 체권단은 이달 중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조건을 박 회장에게 알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체권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인수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를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3월 말에는 금호타이어 새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 정책 세일즈맨 발 벗고 나서겠다”

신임 김진형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김진형 제18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57)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비수도권인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낮은 중소기업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청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 정책 세일즈맨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미국 와시번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등을 거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총괄팀장, 중소기업청 경영지



원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대통령비서관, 중소기업정책국장,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핵심요직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다.

김 청장은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 재직 시에는 벤처특별법을 입안해 벤처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재직 시에는 소상공인정책국을 탄생하게 된 영세자영업자 증대대책을 기획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농업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생산안정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사업설명회

전남농협, 수급안정·농가소득 보전 앞장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와 전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농업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생산안정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겨울배추,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생산안정제 사업은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돼 가을배추, 마늘 등 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의 생산안정제 추진방향, 지자체 사업비 편성계획 및 농업의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산안정제 사업은 농협에 계약재배를 약정한 농가에 대해 평년가격의 80% 수준인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흥목 본부장은 “생산안정제의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수급안정은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감미디어 품질평가체계 세미나

전남진흥원, 정선 하이원리조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정렬)은 오는 9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17 실감미디어 산업의 미래 가치와 품질평가체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실감미디어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 소개와 품질평가체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실감미디어 컴퓨터 비전 기술 소개(한양대 박종익 교수)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기준발표(고려대 김정현 교수)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시범 서비스 및 사용자 경험기반 품질평가체계 소개(연세대 김진우 교수) ▲실감미디어산업과 품질평가체계 필요성 및 확산방안 토론(전남대 이철우 교수,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FTA 피해, 무역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중진공 전남본부, 용자·컨설팅 지원...세원목재(주) 재도약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채무석)는 무역 조정지원 사업으로 업계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암 대불산단 세원목재(대표 홍기오)의 지난해 매출이 60억2,500만원으로 반등했다고 8일 밝혔다.

세원목재(주)는 2006년에 설립, 건설 및 한옥자재 등 건축용 제재목을 생산해왔다. 사업 초기 저가의 수입원목으로 파래트를 생산, 2007년 매출 11억5,700만원에서 2009년 50억1,000만원으로 오르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질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질레의 완제품 수입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됐고 거래처도 줄었다. 매출도 지난 2011년 38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위기극복과 변화를 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상의했지만 업종이 부진한 건설업이고 실적도 나빠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전남본부는 세원목재(주)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탓에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 중 제조업·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 동일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하거나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 금액을 용자해주고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세원목재(주)는 이를 통해 무담보 신용자금용자(7,500만원)와 재조정장혁신을 위

한 설비관리체계 구축, 마케팅 역량 향상 등을 받았다. 이후 업체는 거래처를 기존 중간 도소매업체에서 건설회사 등 최종 소비자로 다변화했다. 품목에는 합판을 추가, 저렴한 수입제품에 맞섰다. 회사는 올해도 제품 보완과 신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채무석 본부장은 “향후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제조업의 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사업을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조정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전남지역본부(061-280-8033)로 연락하면 된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인증 9001
KSA 인증 9001·2001인증

방수! 직접 시공하세요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적벽돌, 흙집, 드라이비트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무독성제품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미화표'를 꼭 확인 하세요!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 367-7755

시외지역택배우송함
광주시 서구 농성동 660-29